

# 정근식 “재정 따른 교육격차 경계… 사교육 공공성 강화 고민”

## 제23대 서울시교육감 취임식

사교육, 많이 활용하는 교육 통로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풀어야 재정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감소, ‘기회’ 될 수도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오후 취임 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련된 첫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의 학습 기회도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교육계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은 선(善), 사교육은 악(惡)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많이 활용하는 교육 통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로 이를 완전 부정하기는 힘들다”라며 “다만 너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부는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비를 부담하는 일부 계층에만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접근할 수 없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공공성 강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 체제,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 잇는 교육 행정을 펼쳐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상당 정도 정상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가, 이에 비해서는 고등학교가

새로운 흐름에 취약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정 교육감 진단이다.

정 교육감은 “과열된 입시경쟁과 교육비 부담 등이 결혼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완전히 분리해서는 이 문제(과열된 입시경쟁과 교육비 부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대학, 교육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공통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지 ‘위기’일 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재정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되레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진정한 교육선진국은 하나의 잣대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갖는 각자의 소질

을 개발해 학생 한명, 한명이 빛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 재정 축소는 정 교육감이 당면한 과제다.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하지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초·중등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봉준호 감독과 BTS 등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인을 배출하는 등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이제 현실이 됐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률적 잣대에 따라 학생을 교육 및 평가하지 않고)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뚝, ‘미리 내 집’ 찾아 결혼·양육 등 건의 청취

### 신혼부부 4쌍과 아파트 현장점검 결혼, 출산, 양육 등 건의사항 청취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자를 한 달여 앞두고 신혼부부들과 함께 아파트를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 내 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쌍과 아파트 현장 점검을 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과 주거난 관련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는 “그 동안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아이가 뛰어놀 놀이터가 부족했는데 큰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을 하

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미리 내 집 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입주하는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미리 내 집은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 213대 1(무자녀 대상 49㎡)을 기록했다. 1~2차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도 50대 1을 넘어

섰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26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호 이상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올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에는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해 연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 디자인 2024’ 기자간담회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디자인 2024’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서울디자인 2024’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 주제로 시가 디자인 세계를 이끄는 영향력에 대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전시와 마켓, 콘퍼런스, 부대행사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서울 디자인 2024’는 17일(목)부터 27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서울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손진영 기자 son@

## “파주개성인삼의 우수한 효능 느껴보세요”

### 내일부터 이틀간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시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19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임진각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축제는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파주 농특산물의 판매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 판매되는 모든 인삼은 6년근 인삼으로, 파주시 공무원의 철저한 입회 아래 재배부터 채굴, 선별, 봉인 과정까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제품이다.

이번 축제는 ‘즐겁게(불거리), 맛있게(먹거리), 함께(놀거리)’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즐겁게(불거리): 장단삼백요리 경연대회, 인삼배 씨름대회, 거리공연 및 폐막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맛있게(먹거리): 파주 지역의 농특산물과 가공품, 즉석 가공품 및 전문 음



식이 판매되며,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께(놀거리): 인삼 경매, 서커스 놀이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임진각 주변에는 임시주차장과 평화누리 주차장, 캠핑장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문산역과 임진각 행사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도 수시로 운행되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개성인삼의 효능을 알리고,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동시에 다양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 ‘편 디자인’ 민간 확산

서울의 ‘편(Fun) 디자인’ 시설물이 공공 공간을 넘어 민간 현장으로 확산한다.

서울시는 17일 현대건설과 함께 시 전역 13개 주택건설 사업지에 편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편 디자인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에 재미를 더해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게 만드는 디자인이다.

양 기관은 ▲편 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제공 및 협의 ▲편 디자인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편 디자인 시설물 확산 홍보 업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시는 편 디자인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건설은 내달 말 준공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서울 전역 13개 주택건설 사업지에 편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볼거리·먹거리 가득한 ‘명량대첩축제’

### 진도군, 오늘부터 20일까지 개최

진도군은 2024 명량대첩축제가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군내면 녹진관광지 일원과 진도대교 등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월 18일 첫째 날, 오후 7시에 녹진 승전무대에서 개막을 알리며, 생동감을 살린 ICT융복합 멀티미디어 해전 재현과 국카스텐의 축하공연, 해상 불꽃쇼가 펼쳐진다.

또한, 녹진승전무대에서는 18일에 남도들노래, 울돌목 국악의 향연, 광양 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펼쳐지며, 19일에는 조선수군 무예대회 예선, 청소년 가요댄스 예선, 트로트 명량한밤, 해상 불꽃쇼 등이 예정되어 있고, 20일에는 진도씻김굿, 조선수군 무예 및 팔씨름 대회 본선, 장현 거리 노래방으로 인하여 많

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간의 축제 기간에 녹진 주말장터에서는 14시부터 주말장터 특별공연, 16시에는 남도 품바 명인전과 명량트롯 향연 공연이 진행되며, 대교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향토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는 ‘녹진코스모스 체험장’을 운영해 강릉열차 및 서화 체험, 신호연 날리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음악과 함께 코스모스를 구경하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명량대첩축제 참여를 위해 진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진도군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9h7505@